

사회

# 성묘길 주변 축사 수도턱 '초비상'

## 구제역 사각지대 공동묘지 인근 간이방역초소 설치 시급

설(2월 3일) 연휴 고향을 찾는 성묘객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광주·전남·북 지역 축사 대부분이 마을 어귀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인근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로 인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2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최근 귀성객의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우려해 전국 호남향우회 등을 통해 설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구제역 청정지역 고수와 AI 조기 종식을 위해 도내에 구제역 방역초소 235개소와 AI방역초소 75개소 등

310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귀성을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운 데다, 지자체마다 주요 도로를 제외한 마을 산자락의 축사까지는 직접적인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소규모 축사들은 농장주가 축사 입구에 생석회를 뿌리고 발판소독제를 설치하는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성묘객이 축사를 방문하더라도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는 상황이 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 연휴기간 성묘객으로 인한 구제역과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축산 관계자는 "군내에 몇 곳의 공원묘지는 인근에 소규모 축사가 자리 잡고 있어, 성묘객으로 인한 구제역 및 AI의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묘소와 축사가 근거리에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방역당국이 나서서 간이 방역소 설치 등 설 연휴기간만이라도 성묘객을 대상으로 한 방역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대 수의대 조경호 교수는 "최근 도내 가족에 대한 구제역 예방 접

종이 실시됐으나 현재가 형성되기에 아직 이르다"며 "구제역 청정지역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성묘객을 막을 수 없다면 연휴기간만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축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들이 묘지 인근의 축사 축입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방역강화 홍보와 함께 외부인들을 축사 내로 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역상황은 '전쟁'과 다름없기 때문에 귀성객들이 최대한 축사를 멀리하고 성묘를 자제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비리 '쉬쉬'

## 17억 예산 부당집행 적발하고도 고발 안 해

광주시교육청이 수십억원의 예산 부당집행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청이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등 청렴행정 실천을 강조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며 안팎의 논쟁을 받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사무관이 학교 행정실장 재직시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 A사무관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핵심부서에 발탁됐다.

감사실은 A사무관이 각종 물품, 기자재 구매 등에서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이 사무관은 학교 재배치 사업과정에서 10개월여 행정실장을 맡아 예산 17억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모두 50여건을 발주했지만, 경쟁입찰은 한 건도 없었

다. 지방 계약법상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해야 하지만, 낮은 금액으로 쪼개 해당 금액 이하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특정업체와 업자에게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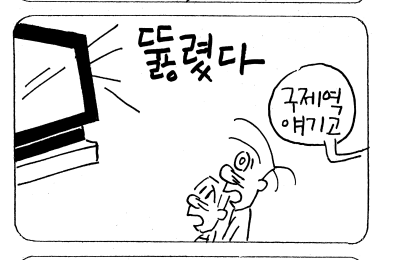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청은 당사자가 급급수수와 항목 등을 부인하고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 고발 없이 자체 징계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발주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수의계약에 달하는 분할발주 수의계약을 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비리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 학교는 물품구매 등 입찰내역 등을 학교나 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교장도 관리소홀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나원침 (8231) 김종두



조선대생들 '특전캠프' 26일 담양 황금박쥐 부대의 병영체험캠프에 참가한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이 연병장에서 유격체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주리조트 스키장 리프트 가동 중단

## 50여명 10m 공중서 2시간 '덜덜'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리프트 가동이 2시간 동안 중단되는 바람에 스키어들이 강추위 속에서 공중에 멈춰서 리프트에 갇힌 채 추위와 공포에 떨었다.

26일 무주리조트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 스키장의 크루즈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섰다.

이 사고로 리프트에 탄 스키어 50여명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서 지상에서 10m 높이의 공중에 멈춰서 있는 리프트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리프트 운행이 정지된지 40분이 지나서야 구조가 시작됐고, 운행은 사고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50분께 정상화됐다.

리프트 측은 리프트 가동이 중단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리프

트에 갇힌 스키어들에게 적절한 배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영산강 사업 공사현장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26일 오전 11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교와 극락교 사이의 영산강 살리기 6공구 공사현장에서 잉어, 붕어, 누치 등 물고기 수백마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100마리 이상은 이미 폐사했으며 다른 물고기들도 폐사 직전 상태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준설 과정에서 물을 빼내는 바람에 수심이 낮아졌고, 최근 강추위로 인해 물고기들이 동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석방 신청한씨 출국금지 조치

방송인 신청환(36)씨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씨를 석방한 직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경찰청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신씨를 석방한지 하루만인 지난 21일 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신씨가 장기간 해외 도박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09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오른쪽 정강이뼈에 철심을 박았으나 도박생활 과정에서 철심이 부러지면서 뼈가 어긋나 현재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술 후 신씨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술취한 강도 경찰서 가서도 '물물'

○대낮에 만취 상태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60대가 집 주인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3)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강모(30)씨의 집 안방에 몰래 침입해 장롱을 뒤지던 중 열방에 있던 강씨에게 붙잡혀서 격투를 벌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신 뒤 대문이 열려있던 강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경찰서에도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잠을 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 260명 벌금 30만~50만원

###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을 목적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어서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형

을 선고유예했고 남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한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免訴) 판결하고, 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하던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대신 정당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

# 목포서 편의점 강도 잇따라

설을 앞두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6일 새벽 2시40분께 목포시 산정동 산호관광 인근 A편의점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도가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23일 새벽 1시경에는 목포시

상동 B편의점에 안경을 낀 남자 1명이 들어와 종업원을 협박해 현금 25만원을 훔쳐 도주했다. A편의점과 B편의점 간 거리는 1.2km 떨어져 있다. 목포경찰은 두 편의점 안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초등생 성추행' 7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6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황과 상식, 피해 어린이 A(8)양의 나이, 정신적 미성숙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진술의 정확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24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광주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7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중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b>9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b>9급 문제풀이</b>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b>법원/검찰직</b> 강의시간: 09:00-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결	<b>9급 야간반</b> 강의시간: 19:00-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b>농업직/기술직</b>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b>명품 '강력단과'</b> 영역,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b>합격 소망직 (전문)</b> 시험정보와 동일, 채택률상위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